



신흥시장 불안에도 성장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

WRITING 김유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ymkim@kiep.go.kr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규모와 넓은 국토,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닌 국가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도네시아’를 연상할 때 열대림이 우거졌으며 노동자를 해외로 많이 송출하는 국가로 생각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석탄, 주석, 동, 니켈 등의 자원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구 구성을 보면 전체 인구의 약 45%가 24세 이하 인구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다.

그러나 일부 인도네시아 지역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는 지난 30년간 성장잠재력만 있었다”라고 말한다. 이는 성장잠재력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배경은 인도네시아 사회가 관료주의와 부패가 팽배해 투자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인프라 관련 사업들의 추진이 자주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을 줄여 나감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루기 위해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 중장기경제개발기본계획(MP3EI)에 따라 국토 전역에 사회공공기반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에 들어가면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신흥국의 금융 시장이 타격을 입었지만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성장잠재력은 여전히 높다. 아울러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소비시장으로도 각광받고 있으며, 부가가치 산업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높은 만큼 인도네시아의 경제 향방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 사항

국명	인도네시아공화국
면적	190만 km ² (한반도의 19배)
인구	2억 4,690만 명(2012년 기준)
수도	자카르타
언어	인도네시아어(공용어) 및 기타 토착어
민족	자바족(41%), 순다족(15%) 등 약 300개 민족
종교	이슬람교(86.1%), 기독교(5.7%), 가톨릭교(3%), 힌두교(1.8%), 기타 종교(3.4%)
기후	열대

경제 현황

명목 GDP	8,707억 달러(2013년 추정)
1인당 GDP	3,484달러(2013년 추정)
인플레이션	7.0(2013년)
외환보유고	24.7억 달러
통화단위	루피아(Rupiah)
경제적 강점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경제적 약점	취약한 인프라와 부가가치 산업, 부패와 관료주의
주요 부존자원	팜유, 천연가스, 니켈, 구리, 목재, 고무 등

한국과의 관계

수교일	1973년 9월 17일
수출	139억 달러(2012년)
수입	156억 달러(2012년)

금융시장 불안에도 투자 유입 계속돼

2013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왔다. 2012년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내구재 보급이 본격화되는 기점인 3,000달러를 상회하는 3,596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앞서 언급한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소비시장의 확대,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확대 등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인 경제개발회랑 계획(IECDS)에 필요한 재원은 약 4,72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의 재원은 민간 또는 민관 합동 형태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대인도네시아 그린필드 투자(FDI의 일종으로, 외국인이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세우는 방식의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07년에 69억 달러에 불과했던 FDI 유입액이 2012년에는 198억 달러를 초과해 2012년 기준, 투자유치국 세계 17위에 올랐다.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간하는 2013년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르면, 2013~2015년 동안 인도네시아가 중국, 미국, 인도 다음인 세계 4위의 투자유

치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이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인도네시아 FDI 실현액이 지속적인 증가 속에 250억 달러를 상회했다. 대외무역 규모는 2009년 1,725억 달러에서 2012년 3,683억 달러로 3년 새 113.5% 증가했는데, 이는 광물 수출 및 자본재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이로 인해 2012년까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인도네시아 수출입 구조가 2013년 2/4분기부터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되었다. 자원 개발을 위한 자본재와 산업 원자재로 사용될 가공품 수입이 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부터 니켈, 주석, 구리, 보크사이트 등의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정제소를 건립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발효시켰는데, 광물이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커다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기준 산업별 인도네시아 GDP 현황을 분석하면 제조업이 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업(14%), 유

통 및 호텔·요식업(14%), 광물(12%), 건설(11%), 금융업(7%), 수송 및 통신(7%)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유통 및 호텔·요식업의 성장이 눈에 띄고, 금융업과 수송 및 통신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 서비스업도 GDP 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유망 산업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의 인도네시아 경기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투자 부문에서 외자 유출이 시작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으로 인도네시아 화폐인 루피아화의 가치 하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도 감소했으나 자카르타 주가지수와 인도네시아의 CDS 프리미엄 추이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용도는 유지되고 있다.

[1인당 GDP 및 경제성장률]



[연도별 FDI 유입액]



대인도네시아 수출과 투자의 성장 잠재력 높아

2012년 기준, 한·인도네시아 간 교역 규모는 296억 달러로, 1973년 수교 당시보다 약 160배가 성장했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139억 달러와 156억 달러에 이르는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여덟 번째 수출대상국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입 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수출액의 39.5%를 석유화학제품이 차지하고 있고, 수입 상위 품목은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천연자원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990년대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증하기 시작해 2006년에 11만 달러를 상회했고, 2011년에는 26만 달러까지 확대됐다. 2011년 누계 기준, 산업별 투자 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광업(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1차 금속 제조업(30.1%)과 섬유 및 봉제업(23.6%)의 비중이 높아 투자 대상 산업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여섯 번째 투자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는 협력채널을 확대하기로 하고 2013년 9월 25일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기존의 9개 경제협력의제에 추가로 '문화 창조' 분과를 신설했으며, 10월에는 양 정상은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포괄적경제협력(CEPA) 협상을 신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인도네시아 CEPA가 체결되면, 양국의 GDP가 각각 0.13%, 0.03%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입 상품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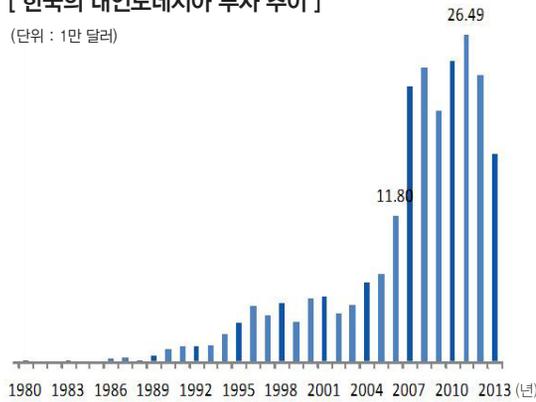
(단위: 1,000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규모	비중	품목	규모	비중
1	석유화학제품	5,514	39.5	천연가스	5,342	34.1
2	철강·합판	1,078	7.7	석탄	3,257	20.8
3	편직물	667	4.8	원유	1,779	17.8
4	합성수지	603	4.3	석유제품	773	4.9
5	합성고무	358	2.6	임산 부산물	482	3.1
	총수출액	13,955	100.0	총수입액	15,675	100.0

주: MTI 3단위 품목 분류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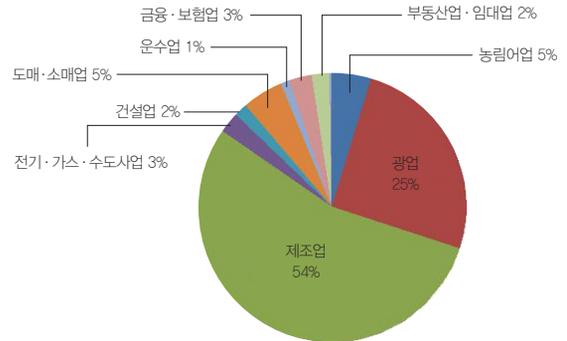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추이]

(단위 : 1만 달러)



주: 실태조사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별 투자구조]



주: 2011년 실태조사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매년 14%씩 성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소비시장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투자 매력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이다.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 및 봉제업, 광업,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방대한 물적·인적 자원은 성장잠재력의 주된 동력이며 여전히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일고 있는 보호주의 움직임은 이 같은 투자에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대인도네시아 투자에도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그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의 확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GDP에서 민간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7.3%로 비교적 높으며, 특히 도시 거주자의 소비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지출은 2001년 이후 연평균 14%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산층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이들은 국제 경기 둔화와 현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가품인 자동차, 수입 화장품, 명품 의류 등에 대한 구매력이 매우 높은 성향을 보인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3년 인도네시아 내 자동차 판매량은 123만 대로, 2012년의 111만 대보다 증가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의 규모도 매년 15%가량씩 증가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소비시장 진출을 위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한편 관련 정책을 숙지하고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간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주로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서부 자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양상도 탈피해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서부 자바 지역에 대한 과잉 투자로 지역 간 발전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서부 지역은 극심한 교통 체증과 높은 임금 상승률로 투자 매력도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동비용이 낮고 인프라 구축도 용이한 동부 자바로 투자를 선회하거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칼리만탄과 술라웨시 회랑에 대한 투자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칼리만탄과 술라웨시 회랑은 일본과 중국의 지원으로 재원이 충분한 자바 회랑과 수마트라 회랑보다 개발이 덜 되어 이 지역에 대한 시장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TR

